



바이든 행정부 또한 철도회사인 Brightline이 로스앤젤레스와 라스베이거스를 연결하는 고속철도 라인을 짓는 데 30억 달러를 도박적으로 투자했다. Brightline사는 최근 플로리다에 마이애미에서 올란도로 이어지는 고속철도를 개통하였다. 해당 사업은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비용으로 원활하게 건설하였기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캘리포니아에서의 낭패와 더욱 대조되었다.

그러나 이 플로리다에서의 사업 성공이 로스앤젤레스와 라스베이거스 철도 사업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 미국 서부의 산악 지형은 플로리다의 지역적 특성과 달라서, 사업은 더욱 복잡해지고 비용도 더욱 들 것이다. 산악 지형이라는 특성과 캘리포니아의 엄격한 환경 보호 규제 부담이 추가되어야 한다. 더불어 연방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음으로써 따라야 하는 명령 사항들이 비용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결국, Brightline사의 계획은 물거품이 될 수 있다.

바이든 집행부의 총 82억 달러에 달하는 철도 건설 투자금은 2021년에 입법된 기반시설 투자법(인프라법)에서 흘러온 것인데, 여기에는 속임수로 얻은 예산과 비자금이 가득하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인프라법으로 낭비된 세금만 7조 5000억 달러에 달하며, 정부 지출이 과도하게 증가하며 발발한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미국 국민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인플레이션에 이어 이자율까지 치솟으며 미국 경제는 큰 혼란에 처해있다.

정치적인 사기 행위와 불완전한 인프라법으로 낭비된 달러는 미국 재정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33조 800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 국채는, 지난 수십년간 워싱턴이 적절하게 예산을 분배하여 사용하지 못해 왔음을 보여준다. 의회예산국은 가까운 시일 내에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을 강조했다. 이자율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연방의 순이자 지불액은 전년 동기 대비 65% 상승했다. 치솟은 이자 지불액은 국방비를 넘어설 수 있으며, 견디지 못할 수준의 손실을 발생시킬 것이다. 국가 안보와 의료 국민 건강 보험으로 지출되는 75조 달러의 단기채무액과 함께, 연방 정부의 재정은 미국 경제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전망이다.

워싱턴은 최소한, 완성되지 못할 철도 사업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세금 납부자들을 속이기를 멈추어야 한다.

번역: 강채희

출처: <https://www.heritage.org/transportation/commentary/america-taking-high-speed-train-bankruptcy>